개도국경제성장의 활력소—유가인하

—저유가·「엔」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 정 모
<사회과학대 교수·무역학>

Ⅰ. 서론및 배경

최근 세계경제의 환경은 원유가하락, 「달러」 가치하락 및 「엔」가치상승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큰 변화가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체제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퍽 의미있는 일이다.

1. 油價引下背景및 展望

86년1월20일 영국의 북해산 「브렌트」 원유가격의 폭락으로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북해산및 텍사스원유가격은 2월10일 현재 배럴당17달러이하로떨어져 79년이래 최저수준이며야마니 사우디 석유장관은 원유가격이 배럴당 15달러이하로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油価의 하락한계는 없다고 밝혔다.

(표1) 現物및 先物油價 推移 (단위 : $/배럴)

		회의전 (12월 2일)	회의후 (12월18일)	86. 1. 21	86. 2. 12
北海 Brent油		29.35 (11월末)	25.20 (12월 8일)	19.85	16.35
先物 (Light sweet, NYM)	1986년 2월分	29.14	25.09	20.59	〃
	3월分	28.33	24.27	20.81	〃
	5월分	27.20	23.35	20.36	〃

이와같은 원유가하락의 원인은 첫째, 원유소비국들의 소비절약과 대체에너지개발로 수요감소 둘째, 非OPEC산유국들의 증산으로 OPEC의 시장지배력약화 세째, 원유선물및 현물시장의 확대로 OPEC산유국에 대한 원유수입국들의 의존도감소 네째, OPEC산유국들이 원유시장점유율회복을 위해 일일원유생산상한선을 훨씬 넘는 증산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유가격하락은 당분간 지속되고 국제원유가는 금년말까지 배럴당 14~18달러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86년중 국제평균원유가는 5~7달러/배럴 하락할 것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예측하고 있다.

2. 「엔」화강세의 배경 및 전망

85년 9월 22일 뉴욕의 선진 5개국 (G—5) 회의이래 급락한 「달러」 가치와 급등한 「엔」 화가치는 86년 2월16일 현재달러당 1백80엔선에 머무르고 있으며 당분간 이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 배경은 우선 미국의 큰 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이다. 미국정부와 연방준비이사회는 81년 「레이건」행정부출범이래 만성적인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달러」 貨의 강세를 가져왔으나 이것이 오히려 미국의 수출을 둔화시키고 국내수요중대로 인한 수입중대를 가져와 무역적자를 중대시키고 생산이 위축됨에따라 실업이 증가하여 보호주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의 고금리는 국제금리를 인상시켜 개도국들의 외채상환을 어렵게 만들어 많은 개도국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한편 일본은 안정된 물가유지 (연간 2~2.5%의인플레), 높은 생산성증가,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신장을 지속하여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해 와 강력한 채권국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미·일양국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부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고평가된 「달러」 貨의 대외가치를 낮추고 「엔」 貨의 실세를 회복하기 위해 G—5회의는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엔」 貨의 「달러」 표시환율에 미·일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달러」 1백90엔을적정선으로보는데 비해 미국측은 「엔」 貨가 「달러」 당 150~170 「엔」 선으로 상승해야 미일무역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엔」貨의 「달러」표시가치의추가인상문제는 미·일간의 금리동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 최근 「엔」화강세로 인한 국제경쟁력약화를 우려 내수중대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였다 (재할인율을 5%에서 4.5%). 그러나일본은 자국만의 금리인하가 미·일간의 금리차이를 줄대시켜일본자본의 대미유출현상이 중대될 경우 「달러」貨의 가치가 강세로 반전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미금리인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율은3~4%이므로 실질금리면에서 「엔」貨의 対「달러」화자산보유가 유리하므로 「엔」 환율은 「달러」당 1백80엔선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및 국제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Ⅱ.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가하락의 파급효과

유가하락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국가그룹별 국제수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영국, 노르웨이등 원유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국제수지를 개선시킬것이며 비산유개발도상국들의 수입부담도 크게 감소시켜 국제수지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원유수출국들은 석유수입의 감소로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표2) 자유세계의 원유수급비교 (단위 : 백만B/D)

	1979	1982	1985	연평균증감율(%)
세계소비	52.4	46.0	45.6	−2.2
선진국	41.6	34.6	33.8	−3.1
개도국	10.8	11.4	11.8	1.5
재고변동	1.3	−1.1	—	—
계	53.7	44.9	45.6	—
非OPEC공급	22.1	25.1	28.5	4.8
OPEC공급	31.6	19.8	17.1	−7.7

자료 : IEA, Oil market Report, 각호

둘째, 세계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에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유가인하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유류소비지출비를 감소시키고 간접적으로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진정시켜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고 민간소비지출의 증가로 총수요를 증대시켜 설비가동율이 상승하고 경기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생산투자가 늘어나 생산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수입수요를 증가시켜 선진국의 경제정책은 성장지향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인플레율의 하락, 긴축통화정책기조의 완화로 미국등 선진국의 금리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소비자금융수요확대, 기업투자금융하락, 기업이윤및 자금사정호전등에 힘입어 소비및 투자회복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유가가 사우디공시가기준으로 23弗로 하락할 경우 선진국의 연간 GNP성장률은 0.4% 증가할 것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향후 2년간 1% 하락하며 세계교역량은 0.8%정도, 비산유개도국의 수출은 1~1.5%증가가 예상된다.

세째,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유가하락으로 멕시코, 나이제리아등 거액채무국들의 석유판매수입이 감소할 경우 외채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금융연구소의 예측에 의하면 86년 평균원유가가 배럴당 20弗일 경우 산유채무국들 (20대채무국중 10개국) 의 석유수입감소는 2백50억불에이를것이며 특히 외채대국인 멕시코 (9백60억불)는 86년도에70~80억불이 필요한데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원유가격 1弗하락은 멕시코에 5억불이상의 원유수입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국제금융시장 차입여건은 악화될 것이다.

유가하락은 인플레를 진정시킴으로써 국제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므로써 자금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금리상승압력도수반하게되므로 순효과를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금융완화기조가 계속되면 금리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2. 「엔」貨强勢의 波及効果

미국으로서는 수출중대및 성장률상승이 기대되는 반면 일본은 그와 반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제전체의 성장및 교역도 약간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의 국제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이므로 보호주의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내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실시되고 환율변화에 따른 국제수지개선에는 상당한 시차가 따르게되므로 보호주의문제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3) 한국의 원유도입량및 도입단가

	1985		1986(예측)	
	도입량 (백만배럴)	도입단가 ($/배럴, FOB)	도입량 (백만배럴)	도입단가 ($/배럴, FOB)
장기계약	113	26.98	186	—
현물	51	26.07		
가공수출용	34	26.56	32	—
계	198	26.67	218	20.67

한편 일본이 「엔」 화강세를 정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수확대없이 금리인상등 금융긴축에만 의존하는 경우 세계경제의 축소균형 위험성이 없지 않다.

「엔」貨강세로 일본은 주요제품 수출가격을 평균 10%정도 인상하였으나 아직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일본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수출가격을 크게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美·유럽기업들은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계기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경쟁이 가열될 것이다.

한편 개도국들은 선진국에비해 경쟁력이있는 노동집약적인 수출상품을 가지고 선진국시장에 수출중대를 꾀할 것이며 개도국들의 수출이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전망이 밝아 경제성장의 활력소가 될것이다. 또 개도국들의 외채문제는 「달러」貨약세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선진국금리가 일본에이어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약세를 보였던 원자재 (원유가제외) 가격은 「달러」 가치하락에 따라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Ⅲ.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가격하락이 미칠 영향

원유가격하락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경우 주요산업요소인 원유가하락으로 생산이 증대하므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며 세계교역증대에 따른 수출수요의 증가로 수요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공급곡선의 이동이 보다 크게 되어 성장율이 상승하고 인플레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우디공시유가가 5弗하락하여 23 「달러」가 되는 경우 연간석유수입부담감소는 약 10억불 (5弗×2億배럴) 이 될 것이다.

수출은 세계교역량이 0.8% 추가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비중동지역수출 (실질) 은 1.6% 정도 증대될 것이며 수출단가는 약 0.6% 하락요인이 발생하여 명목수출중대는 3억弗로 추정된다.

(표4) 經常收支推移와 展望 (단위 : 10억달러)

	1984	1985	1986 ($26/배럴로 引下時)	$20/배럴로 引下時 影響
선진국	−64.3	−63.6	−55.7	+20.0
개도국	−40.7	−33.5	−33.5	−10.0
석유수출국	−16.5	−15.5	−14.9	−15.0
비산유국	−24.2	−18.0	−18.6	+5.0

수출중대에 따른 GNP성장효과는 약 0.5% (1.6%×0.3 (성장의수출탄력성)) 로 추정된다.

국내물가는 국내유가가 비례적으로 인하조정되면 공급측면에서 도매물가는 약 3%의 인하요인이 있으나(도매물가구성가 2.3%)로 금액은 약 13~14억불로 예상된다.

수입은 수입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절감효과가 수출및 성장률상승에 따른 중대효과에 의해 상쇄되므로 명목수출은 약11억불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단가상승 3.5%+실질수입증가 0.5%=4%). 따라서 무역지수는 약 2.5억불 개선될것이며 해외건설수출의 전반적인 시장침체에 따라 경상수지개선·기여는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나 이런 변화를 적절히 이용하는 지원시책이 있을 때 그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 우리나라 경제 발전 도약의 기회가 될것이다.

1.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상기의 파급효과를 중대시켜야 할 것이며 국내유가 인하시 국제유가인하폭을 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원유가 인하는 우리의 경쟁상대국에도 유리함을 주며 국제경쟁력은 상대적효율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효율성에 따라 파급효과와 성장을 더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하락은 산업구조의 개편, 국제수지적자탈피의 호기로 삼아야 하고 기업이 유가하락분을 최대한 제품가격하락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대외경쟁력이 상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석유도입방법의 개선으로 국제유가하락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축적인 환율정책운용이 요구된다.

현행의 실질실효환율을 안정화하는 방식의 환율운용은 한국과 직접교역비중이 낮은 경쟁국의 환율변동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므로 실질실효환율 균형에 집착하기보다 대외가격경쟁력유지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수출, 물가, 경쟁국가의 환율운용을 참작하여 신축적으로환율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3. 우월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및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노력의 강화가 요구되며미국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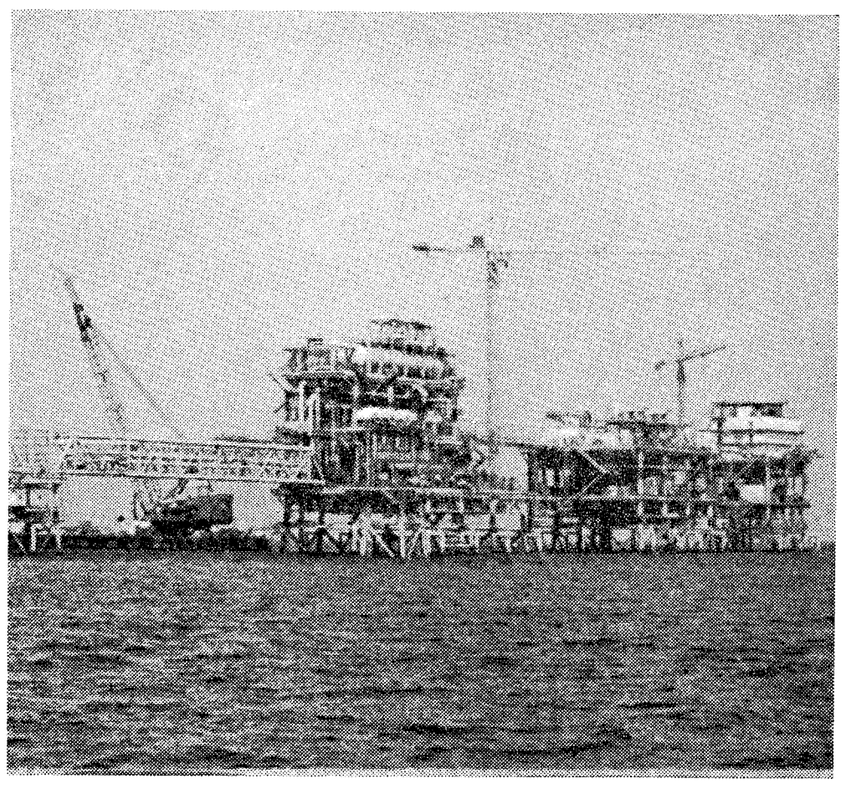
일본의 소비자행동, 산업별 기업경영및 가격책정유형을 연구하여 「엔」 화강세에 따른 취약부문상품의 수출증대를 도모하여 구조적인 대일적자의 혁신적인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다. 미국시장에서 자동차, VTR, 기계등 일본제품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품목에 있어서 우리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제고되어야할 것이다.

4. 수입시장의 다변화와 수입대체노력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수입선을 다변시켜 일본에대한 과도한 수입의존및 무역역조시정을 추구하고 국산기계및 부품구입이 일제구입시보다 유리하도록 생산자및 구입자에대한 금융및 세제상의 지원이 강화되어야하며 양국생산 동종기계의 품질, 가격, 금융여건등의 비교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5. 수출중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본격화하면 그간의 환율인상, 금융완화, 재정확대정책에 따른 물가압력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기반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득정책적인 물가안정화노력을 계속하고 총수요관리도 도모하여 경쟁국보다 낮은 저축률을 높일수 있도록하여야한다.

6. 환율변동이 우리의 외채보유와 외채관리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선물환시장을 활용하고, 기채방식의 개선등 환위험을 피할수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하며 외환보유구성의 적절성에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원유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되고 국제 원유가는 배럴당 14~18달러에서 안정될 것이며 「엔」 환율은 「달러」당 1백80엔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플레율 하락과 금리 인하가 세계 경제활성 유도
산업구조 개편 위한 폭넓은 국가적 지원시책 절실

(표 5) 韓國의通貨表示別 對外去來(1984) (단위 : %)

	「달러」	「엔」	「마르크」	基他
수출	95.0	3.5	0.6	0.9
수입	85.3	10.5	1.7	2.5
資易外受入	89.6	7.2	0.8	2.4
資易外支給	88.9	6.0	1.0	4.1

86년도 해군사관후보 장학생 모집 요강

1. 지원자격

가. 국내4년제대학 1학년(신입생)
나. 64. 3. 1—69. 2. 28 사이 출생자로서 전과사실이 없는 자
다.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모집분야

병과		전공학과
해군	함정	예능계(미술·음악)학과, 종교계열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기관	전기, 기계, 금속, 전자, 박용기관
	항공	운항, 기계, 전자, 통신
	통신	전자, 통신, 전산
	병기	전기, 전자, 기계, 물리, 화학, 화공, 전산
	보급	경영, 경제, 무역, 회계, 식품, 섬유
	시설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해양공학
	조합	조선, 전기, 기계, 금속
	경리	경영, 경제, 무역, 회계
	정훈	신문방송, 국문, 사학, 심리, 철학, 법학, 행정, 연극영화, 음악
	관문	전산, 경영, 산업공학, 경제, 회계, 수학, 통계
	정보	불어, 일어, 영어, 해양기상, 정치외교
해병	보병	예능계(미술·음악)학과, 종교계열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포병	〃
	기갑	〃
	통신	전자, 통신, 전산
	병기	기계, 화학, 화공, 물리, 전자, 전기, 전산
	보급	경영, 경제, 무역, 회계, 식품, 섬유
	공병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수송	

3. 지원서교부및접수 : 86. 3. 3~4. 4

4. 접수장소

각 지방 병무청 해군 모병관실(서울, 수원, 춘천, 청주, 대전, 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해군 교육단

5. 구비서류

1차(접수시) : 지원서및 서약서(해군서식) : 각 1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 각1부, 성적증명서(고등학교 전학년분) : 1부 반명함판 사진 (3×4센치) : 3매
2차(1차 합격자에 한함) : 재정보증서(해군서식) : 1부
재정보증인의 인감 증명서 : 각1부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납부 증명서 : 각1부

6. 시험일자및 장소 : 86. 4. 7~13

가. 학과시험 : 서류전형으로 대체
나. 인물고사및 신체검사 : 86. 4. 7~13일 접수처에서 지정한 장소

7. 신체조건

가. 신장 : 157센치 이상
나. 시력 : 해군 : 나안 0.2 이상
해병 : 보병, 포병, 기갑 나안 0.7이상 기타 0.2 이상

8. 발표일자

1차 합격자 발표 : 86. 5. 9일 접수처에서 게시
2차 합격자 발표 : 86. 6. 20일 접수처에 게시및 학교별 통보

9. 복무기간

7년(의무 복무기간 3년+장학금 수혜기간 4년)

10. 특 진

가. 졸업후 해군, 해병 소위로 임관
나. 대학4년간 공납금 일체지급(1학년 1학기분 : 소급지급)
다. 전공학과와 유사병과 부여로 전공 활동 가능 라. 지원에 의해 장기 복무 가능
마. 장기 복무시 혜택
○. 사관학교 출신자와 동일조건의 진급기회 부여
○. 외국유학및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기회 부여
바. 지도력, 통솔력, 행정 및 경영 능력배양 기회
사. 전역후 국내외 유수기업체 취업 알선

11. 문의처

해군본부 인사참모부(829—3558, 7905—3111, 4405),
각 지방병무청 해군 모병관실

해 군 참 모 총 장

1986년도 국비소방장학생 선발공고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비소방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함

1986년 3월 21일
내 무 부 장 관

1. 선발인원 및 대상

선발인원	대상학과
5 명내외	기계공학과, 기계과, 건축공학과, 건축과, 전기공학과, 전기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화공과, 물리(학)과

2. 응모자격

가. 졸업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자
나. 대학(교) : 86학년도 2학년 재학생으로서 1학년의 성적이 동학년 동학과 학생정원의 50/100이내인자
다. 전문대학 : 86학년도 신입생으로서 입학고사성적및 고교 3년 성적이 동학과 학급학생 정원의 50/100이내인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소방관 채용 신체 조건에 적합한 자 (신장 : 165㎝이상, 체중 : 55㎏이상,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0.3이상. 교정시력이 0.8이상, 색맹이 아닌자, 기타 청력, 혈압등이 정상이어야함)

3. 장학금지급기간·지급액

구분	지급기간	지급액
대학(교)	3년간	등록금 전액
전문대학	2년간	입학금 및 등록금전액

4. 제출서류

가. 원서제출시
○지원서……1부
○성적증명서……1부
○학교장 추천서……1부
○신원증명서……1부 (당해학교 소정양식에 석차 필히 기재 단, 전문대학생은 입학성적 및 고3성적…… 각1부)
나. 최종 선발된 자
○서약서(소정양식)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2인)……각1부
○연대보증인 납세증명서(2인) 각1부 (농지세 또는 재산세 년액 15,000원이상 납부자)
○호적등본(편제사유 기재된 것)……1부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1부

5. 원서교부 및 접수

86. 3. 1~86. 3. 31(31日間) ※ 각대학(교)교무과에서 교부·접수

6. 선발전형

가. 서류심사와면접시험으로 결정하고 그결과를 학교장 및 본인에게 통지함
나. 면접시험일자는 서류심사 결과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함

7. 의무복무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후 장학금 지급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대학생 : 6년 전문대학생 : 4년)

8. 졸업후 초임계급

가. 대학(교)졸업생 : 소방장 나. 전문대학 졸업생 : 소방교

9.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함
나. 장학생 준수사항과 졸업후 의무 불이행시는 지급한 장학금을 곡고에 환수해야함.
다.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후 신분보장, 국의유학, 후생복지 등의 특전이 있음.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내무부 소방과(720—4671, 4163)나 소재할시는 소방본부행정과, 도는 민방위국 소방과로 문의바람